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2, No.3 (May 2002) pp.75~85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 경숙

한성대학교 의생활학부 부교수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Satisfaction by the Awareness of Body Typ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Seoul-

Kyung-Sook Jeon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2002. 1. 2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terrelationship of awareness of body type and clothing behavior.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457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Seoul.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of body type. In total 'high-aware group'(that is, more aware their body type than normal) was 54.9%, but in high school-girls 'high-aware group' was 60.1%. The ideal height and weight did not differ regardless of their body type.

Even though their real weight is normal and under the average, the awareness of body type was very severe. The distortion of body type was observed. The more she were aware their body type, the more felt risks of clothing purchase. Also 'high-aware group' considered symbolic function of clothing more seriously. The satisfaction of clothing were partly influenced by the awareness of body type. The factor analyses of clothing satisfaction of two groups ended with different factors.

Key Words: awareness of body type(체형의식), body image distortion(신체이미지 왜곡), clothing involvement(의복관여), clothing satisfaction(의복만족)

* 본 연구는 2001년도 한성대학교의 교내연구비의 지원과제임

I. 서 론

오늘날 TV를 비롯한 영상 대중매체의 강력한 영향력은 어린이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에게 외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 히스테리’ 또는 ‘최면현상’이라고 하여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중앙일보, 2001. 6. 14). 이상적인 체형은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달라야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극도로 마르고 키가 큰 신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상형에 맞지 않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이미지는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적 장애를 동반할 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있다.

웃은 자기 표현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웃은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신의 결점을 가리거나 의복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즉 의복의 기능은 신체의 결함을 보완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해야 함에도 오늘날은 의복의 구매나 착용으로 인한 불만족이 신체적 불만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에도 장애가 되어 사회적 활동성(social mobility)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신적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며 무리한 체중감량 시도로 사망 까지 이르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할 뿐 아니라 영상매체의 영향으로부터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적절한 의복은 자신감을 주게되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자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의복은 외모와 관련된 자아이미지의 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류업체에서는 의류소비자의 의복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의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긍정적 소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최근 중요한 소비집단인 10대 여학생들의 체형의식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의 체형의식을 측정하여 체형의식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체형의식과 자신의 실제체형이나 이상체형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또,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체형의식정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체형의식정도와 의복관여와 의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체형의식정도가 다른 두 집단의 의복만족도를 분석하여 체형의식이 의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W. Safire는 외모(appearance)가 인종, 성, 종교,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편견과 차별기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루키즘(lookism)’이라고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00. 8. 27). 특히 매스미디어의 지나친 과민반응은 이런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외모가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외모에 의한 차별주의가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형의 사회적 강요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산업은 해마다 40%씩 급성장 하는 황금시장이며 2001년 시장 규모는 1조원, 2003년에는 2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다이어트 시장은 자동차 시장의 26배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한국일보, 2001. 7. 22).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01년 5월에 전국 미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의 식생활에 대한 의식 및 실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1)에 의하면 평균 체중은 53.3kg으로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따른 표준 체중 54kg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의 81.8%가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희망체중은 48kg으로 나타났으며 74%의 여성이 체중감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체중조절에 대한 무리한 시도는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감량의 필요가 전혀 없는 정상체중이나 오히려 체중 증가가 요구되는 저체중인 경우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다. 박혜순(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저체중인 여대생의 53.8%, 정상체중인 여대생의 60.5%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체중조절은 균형 잡힌 식사로 열량을 제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병행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석유억제제나 이뇨제, 다이어트 식품의 남용, 단식, 사우나 등 건강에 해로운 방법들까지 동원하여 체중감량을 시도하고 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1). 무리한 체중조절은 빈혈을 유발하거나 위처짐, 골다골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거식증과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불러올 수 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제 체형과 체형의식

개인에게 있어 실제 체형과 체형의식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Mable, Balance and Galgan(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미만이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중보다 15%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불만족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어서 신체상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심리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중조절행위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관리가 주된 이유이므로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과도한 강박증은 비단 그 자체보다 신체에 더 큰 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형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윤자·이승희(2001), 박우미(2000)의 연구에서 한국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보다 마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인지에서는 더 똥뚱한 것으로 인지하고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극도의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만감을 넘어서 심지어 죄의식까지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설제측정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족도는 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나타낸다(정재은·남윤자, 1999). 즉 신체만족은 실제체형보다 인지체형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실제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의한 것이기 보다 심리적인 왜곡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의복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체형의식과 의복행동

외모와 의복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의복의 구매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him, Kotsiopoulos and Knoll(1991)은 신체에 대한 만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아서 집단에 따라서 신체만족도와 의복태도 사이의 상관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Kwon와 Parham(1994)은 체중, 엉덩이, 허벅지, 허리둘레 등 신체 4 부위의 만족도에 따라 체형인식정도를 분류한 뒤 똥뚱하다고 인지할 때와 마른 것으로 생각될 때의 의복착용동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체형의 인지상태에 따라 의복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박재경·남윤자(1999)에 의하면 착용여부를 결정할 때 상반신은 신체의식과는 관련이 적어 유행이나 선호취향에 의해 결정되나 하반신은 신체크기에 대한 인식이 착의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우미(1999)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드러내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위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스타일은 선호한다고 하였다.

심정은·고애란(1997)에 의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한 의복 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한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여 대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은 의복관심이 끈 아니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므로 의복의 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유행의 복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의 체형의식을 측정하고 체형의식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 (2) 체형의식(주관적 체형)과 실제 체형(객관적 체형)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또, 체형의식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의 관계를 통해 이상체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
- (3) 체형의식과 Rohrer index에 의한 실체체형을 비교하므로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을 파악한다.
- (4) 체형의식과 의복관여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5) 체형의식 정도에 따른 의복만족도를 조사하고 체형의식 정도가 다른 두 집단의 의복만족도를 요인분석하여 각 집단의 의복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문지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 시내 소재 여학생으로 여중 2년과 여고 2년으로 하였다.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 학교에서 임의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것은 여중생 219명, 여고생 238명으로 모두 457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체형의식, 의복만족도, 의복관여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형의식을 묻는 문항은 심정은(1997)의 연구에서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종종 뚱뚱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 체형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걱정이 된다' '나는 내 체중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있다' '나는 특히 내 체형을 의식하게 만드는 옷을 피하려 한다'이다. 측정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5점은 '정말 그렇다'로 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 체형의식 문항의 Cronbach's α 는 .8157이다. 실체체형과 이상체형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현재 신장과 체중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성인이 된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의복만족도에 관해서는 김혜원(1996), 이연희(1996)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 중에서 18문항이 사용되었고 역시 5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만족한 것으로 하였다.

의복관여를 묻는 문항은 이영선(1991), 김혜원(1996)의 연구에서 발췌하였고 유행지향성, 의복관심, 의복상징성, 즐거움, 위험지각의 5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유행지향성(Cronbach's α =.8059)을 묻는 문항은 '나는 어떤 옷이 유행인가 늘 관심을 갖는다' '나는 유행에 맞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연예

인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는 편이다'의 4문항이고 의복관심(Cronbach' $\alpha = .6387$)은 '나는 옷에 관심이 많다' '나는 옷을 살 계획이 없어도 가끔 점포를 들러본다'의 2문항, 의복상징성(Cronbach' $\alpha = .6106$)은 '옷을 잘 입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옷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의 2문항, 즐거움 차원(Cronbach' $\alpha = .7056$)은 '멋있는 옷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남이 내 옷차림에 대해 칭찬하면 기쁨을 느낀다' '나는 옷차림을 연출해 볼 때 즐겁다'의 3문항, 위험지각(Cronbach' $\alpha = .8138$)은 '나는 옷을 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다' '옷은 가격, 스타일, 옷감 등이 다양해서 구입시 선택하기 어렵다'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역시 5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관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문항의 신뢰도 분석, 분할분석, t-test,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토의

1. 체형의식에 따른 집단분류와 신체적 특성

체형의식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체형의식점수로 사용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체형의식은 5점 척도에서 3.16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큰 값을 가진 사람은 체형의식을 많이 하는 집단 즉, 자신이 똥뚱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날씬해져야 하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형의식 고집단'으로 하고, 3점이하인 경우는 체형의식정도

가 낮은 집단으로 '체형의식 저집단'이라고 분류하였다. <표 1>을 보면 전체적으로 45.1%가 '체형의식 저집단'인 반면 '체형의식 고집단'은 이보다 많은 54.9%로 나타났다. 여중생과 여고생으로 나누어 보면 여중생은 저집단과 고집단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고생은 60.1%가 '체형의식 고집단'으로 '체형의식 저집단' 39.9%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χ^2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의 현재 체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현재의 신장은 거의 비슷해서 차이가 없으며 체중은 '체형의식 고집단'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충실파수인 Röhrer Index를 계산해 보면 '체형의식 저집단'은 1.12에 불과해 정상으로 간주되는 1.2보다 작아서 수척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체형의식 고집단'은 1.27로 1.2~1.5에 속하는 정상형이며 비만형인 1.5이상파는 거리가 면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신체적으로는 비만하지 않으나 체형의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실제보다 더 똥뚱한 것으로 인식하는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은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다. 신장은 169cm정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체중은 48.85kg과 49.38kg으로 조사되어 15세에서 2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1)에서 조사된 희망 체중 48.0 ± 4.0 kg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Röhrer Index를 보면 두 집단 모두 1.01과 1.02로 매우 수척한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상적 체형(ideal body type)

<표 1> 체형의식에 따른 집단 분류

구분	여중생	여고생	합계	χ^2 test
체형의식 저집단	111명(50.7%)	95명(39.9%)	206명(45.1%)	
체형의식 고집단	108명(49.3%)	143명(60.1%)	251명(54.9%)	
합계	219명(100%)	238명(100%)	457명(100%)	4.92*

괄호 안은 column percentage를 나타냄.

* p<0.05

<표 2> 집단별 실제 신체 치수와 이상적 신체치수

측정내용	체형의식 저집단	체형의식 고집단	t값
현재 신장(cm, A)	160.39(5.11)	161.29(4.85)	-1.88
현재 체중(kg, B)	46.37(5.37)	52.92(6.32)	-11.11***
현재의 Röhrer Index(C)	1.12(0.11)	1.27(0.14)	-11.52***
이상적 신장(cm, D)	169.32(3.28)	169.08(3.33)	0.78
이상적 체중(kg, E)	48.85(3.73)	49.38(3.66)	-1.51
이상적 Röhrer Index(F)	1.01(0.09)	1.02(0.09)	-1.80

$$C = (B * 10^3 / A^3) * 100, F = (E * 10^3 / D^3) * 100$$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p<0.001

은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체형(stereotyp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매체를 통해 접하는 기대집단들의 체형들을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지나치게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자신의 신체특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제 체형과 체형의식의 비교

자신의 체형의식정도(주관적 체형)와 실제 체형(객관적 체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Röhrer Index에 의해 실제 체형을 수척형(1.2이하), 정상형(1.2~1.5), 비만형(1.5이상)으로 분류한 뒤 체형의식정도와 분할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체형의식 저집단’은 실제 체형이 수척형이나 정상형으로 나타났다. ‘체형의식 고집단’의 경우 비만형인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54.6%는 정상형이며 34.7%는 실제 체형이 수척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체형이 수척형인 242명중에서 36.0%인 87명은 자신이 뚱뚱한 것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실제 체형이 정상형인 188명중 72.9%인 137명도 역시 자신의 체형을 뚱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체형은 마르거나 정상인 경우에도 체형의식 정도가 매우 높아 뚱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15-24세 사이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1)의 조사보고서에서도 비만도상으로는 저체중인 사람의 50.5%가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비만도에서 정상인 사람의 88.3%가 불만족을 보이고 있어서 극도의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윤자·이승희(2001)의 연구에서도 실제 체형보다 인지 체형이 신체만족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신체를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자신의 체형, 즉 객관적 체형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왜곡이 있음으로 인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체형의식에 관한 과민한 반응을 불러와 무리한 체중조절을

<표 3> 체형의식과 신체총실지수에 의한 분할분석

체형의식 \ 체형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계	χ^2 test
체형의식 저집단	155명 (75.2%/64.0%)	51명 (24.8%/27.1%)	-	206명	73.49***
체형의식 고집단	87명 (34.7%/36.0%)	137명 (54.6%/72.9%)	27명 (10.8%/100%)	251명	
계	242명 (53.0%/100%)	188명 (41.1%/100%)	27명 (5.90%/100%)	457명	

괄호 안은 (row percentage/column percentage)를 나타냄

*** p<0.001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왜곡된 신체의식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여학생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3. 체형의식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분석

체형의식정도와 의복 관여의 5차원을 비교한 결과 '체형의식 고집단'이 '체형의식 저집단' 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행지향성, 의복관심, 즐거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차원은 의복상징성과 위험지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Davis(1985)의 연구에서 자신의 인지체형은 패션이나 의복치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여대생의 체형인지와 의복관심은 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형의식을 많이 하는 집단은 의복 선택이나 구매로 인한 위험지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위장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체형의식 고집단'은 의복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의복을 자신의 상징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첫 인상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의복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초래하고 상대적 불만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의복 선택시 위험지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체형의식 정도에 따른 의복관여

변인	체형의식 저집단	체형의식 고집단	t값
유행지향성	2.90(0.84)	3.00(0.82)	-1.22
의복관심	3.45(0.84)	3.60(0.86)	-1.78
의복 상징성	3.88(0.70)	4.08(0.67)	-3.09**
즐거움	3.76(0.69)	3.83(0.71)	-1.17
위험지각	3.25(0.84)	3.63(0.74)	-4.56***

** p<0.01, *** p<0.001: 팔호 안은 표준편차 임.

의류업체에서는 10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체형의식 고집단'을 고려하여 위험지각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패턴을 보완하여 신체적인 결점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전략에서도 지나치게 마르고 키가 큰 모델만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인을 사용하여 체형의식 고집단에 속한 소비자들도 자신감을 갖고 의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 체형인 경우에는 의복 선택의 폭이 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의복 구매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불만감이 증폭되어 신체불만족이 과장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더욱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형의식 정도에 따라서 의복만족도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개성 표현이나 독특성'과 '유행감각'에서도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체형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의 선택이나 유행 추구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나에게 어울림'에서도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어서 의복의 표현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정도가 체형의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이 의복으로 전이되어져서 의복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체형의식정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의 비교

	체형의식 저집단	체형의식 고집단	t값
디자인 및 스타일	4.12(0.60)	3.96(0.69)	2.66**
개성표현 및 독특성	3.39(0.80)	3.25(0.72)	1.97*
유행감각	3.72(0.75)	3.53(0.72)	2.65**
나에게 어울림	4.01(0.72)	3.82(0.82)	2.65**

*p<0.05, **p<0.01: 팔호 안은 표준편차임.

의복만족에 대한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의복만족도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을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1> 및 <표 6-2>와 같다. <표 6-1>의 요인분석의 검증결과 KMO값은 0.831이고 Bartlett test 결과는 1079.00***이고 <표 6-2>는 KMO값은 0.829이고 Bartlett test 결과는 1441.29***로 요인분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을 보면 ‘체형의식 저집단’의 경우 착용성이 요인 1로 도출되었으며 28.7%의 설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요인 2는 품질로 나타났고 외관이 요인 3으로 유행이 요인 4로 도출되어 전체적으로 55.5%의 설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표 6-2>의 ‘체형의식 고집단’을 요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품질이 제1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외관이 제2요인, 그리고 착용성은 제3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가격이 제4요인으로 도출되어 전체적으로 56.2%의 설명률을 보이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는 두 집단의 의복만족에 대한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체형의식 저집단’은 ‘나에게 어울림’, ‘상황, 용도의 적합성’,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옷과의 조화’, ‘몸에 맞는 정도’ 등 착용성 요인에 대한 만족이 의복 전체 만족의 28.7%로 가장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체형의식 고집단’에서는 8.8%로 덜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형의식 고집단’은 의복의 품질 관련 변수들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의 외관을 나타내는 요인을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관여도에서 의복상정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10대의 여학생들은 신체발달과정에서 제2차 성장을 겪으면서 체중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이로 인한 상실감과 불만감이 의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복 디자인이나 치수설정은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

<표 6-1> ‘체형의식 저집단’의 의복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고유치	설명률	누적설명률
요인 1: 착용성	나에게 어울림	.734		
	상황, 용도의 적합성	.694		
	다른 사람의 반응	.689	5.16	28.7%
	다른 옷과의 조화	.600		
	몸에 맞는 정도	.554		
요인 2: 품질	세탁이나 관리의 용이성	.736		
	부속품(단추나 지퍼 등)	.714		
	소재의 내구성 및 흡수성	.635	2.05	11.4%
	봉제상태	.602		
요인 3: 외관	색상	.715		
	디자인 및 스타일	.656	1.60	8.9%
	옷감의 종류와 질	.527		
요인 4: 유행	개성표현이나 독특성	.712	1.17	6.5%
	유행감각	.700		

라 의류업체의 홍보전략도 비정상적으로 마른 모델들만 대상으로 하므로 인해 더욱 상실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dex로 볼 때 극도의 마른 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실제체형과는 상관없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약 169cm이고

<표 6-2> '체형의식 고집단'의 의복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고유치	설명률	누적설명률
요인 1: 품질	세탁이나 관리의 용이성 .728	5.55	30.9%	30.9%
	부속품(단추나 지퍼 등) .712			
	소재의 내구성 및 흡수성 .690			
	봉제상태 .651			
	상표 .611			
	활동하기 편함 .609			
요인 2: 외관	품위 .659	1.85	10.3%	41.1%
	개성표현이나 독특성 .609			
	웃김의 종류와 질 .606			
	디자인 및 스타일 .595			
	색상 .529			
요인 3: 착용성	다른 사람의 반응 .716	1.58	8.8%	49.9%
	유행감각 .628			
	다른 웃과의 조화 .570			
	나에게 어울림 .547			
요인 4: 가격	가격 .771	1.14	6.3%	56.2%
	몸에 맞는 정도 .651			

V. 요약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여중생, 여고생 45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체형의식을 조사하였다. 체형의식이 기준점(5점 척도에서 3점)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체형의식정도와 실제 체형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조사하였다. 또 체형의식과 신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는 '체형의식 고집단'이 54.9% '체형의식 저집단'은 45.1%이지만 여고생의 경우에는 '체형의식 고집단'이 60.1% '체형의식 저집단'은 39.9%로 여고생은 체형의식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체형을 비교하면 신장은 두 집단에서 비슷하여 차이가 없으나 체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과 체중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며 Röhrer

체중은 약48kg으로 이상적 체형(ideal body type)은 개인적인 기준보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체형(stereotype)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실제 체형과 체형의식을 비교해서 보면 실제 체형이 수척형임에도 자신이 뚱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36%이며 실제체형이 정상인 경우에는 72.9%가 자신을 뚱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 실제로 비만형에 속하는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54.6%는 정상형이며 34.7%는 오히려 수척형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에 객관적 상태의 인지보다 주관적 기준으로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체형의식은 의복관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유행지향성이나 의복관심, 즐거움은 체형의식정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상징성과 위험지각은 '체형의식 고집단'에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체형을 많이 의식할수록 의복이 갖는 상징적인 기능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인상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자신의 체형을 많이 의식할수록 의복 선택시에 더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복의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표준체형을 위주로 제작되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복구매시에 많은 위험이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복만족도와 체형의식정도의 관계에서 체형의식을 많이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복의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해 만족도가 낮으며 '개성 표현이나 독특성'이나 '유행감각'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에게 어울림'에 대해서도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의복의 표현적인 속성에 대한 만족이 체형의식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형의식 고집단'과 '체형의식 저집단'으로 나누어 의복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요인 도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형의식 저집단'에서는 착용성이 제 1요인으로 도출되어 의복의 착용 관련 적합성을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품질이 제2요인으로 외관이 제3요인으로 그리고 유행이 제4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체형의식 고집단'에서는 품질이 제1요인으로, 외관이 제2요인으로는, 착용성이 제3요인으로 나타나고 가격이 제4요인으로 두 집단 사이에 의복만족에 관한 설명요인에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N세대라고 하는 계층은 영상문화세대이며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이들의 상징적 또는 기대적 희구집단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체이미지 형성이나 이상적 신체상의 정립도 이런 준거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영상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 모델을 형성하고 그들의 차림새를 선호하게 되므로 자신의 체형이나 신체이미지에 대해 더욱 불만감을 갖게 되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절반이상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류업체에서는 다양한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과 사이즈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극도로 편향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체중조절 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의 일부지역에서만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점이 자료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의복관여나 의복만족도는 의복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참고문헌

-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1996). 소비자의 의복관여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윤자·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 박우미(1999).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복식*, 48, 25-36.
- 박우미(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 박재경·남윤자(1999).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 박혜순·이현옥·승정자(1997). 일부 도시지역 여대생들의 신체상과 섭식장애 및 영양섭취 양상.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505-514.
-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1991). 소비자의 의복관여도와 외적 정보 탐색.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은·남윤자(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
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조성아(199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
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2001). 한국인 너도나도 '살과의 전쟁' 물두.
2001. 6. 14.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다이어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01, 6.
- 한국일보(2001).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여름전쟁', 2001.
7, 22.
- Davis, L. L.(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Motor Skills*, 61.
1199-1205.
- Kwon, Y. and Parham, E.(1994). Effects of state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Mable, H. M., Balance, W. and Galgan R.(1986).
Body-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07-911.
- Safire, W.(2000). Lookism: The New York Times.
2001, 8, 27.
- Shim, S., Kotsiopoulos, A. and Knoll, D. S.(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